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FAR EAST · CIS

극동·CIS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28~10/04

1.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통제와 물류 및 공급망 영향

2. 중간회랑 물류 인프라 확장과 유럽-아시아 운송 경로 다변화

3.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와 결제 시스템 차단이 무역 물류에 미치는 파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0

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통제 강화와 서방의 금융 제재가 맞물리며 물류·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중간회랑 인프라 확장이 대안 운송로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흐름이 나타났다. 러시아의 디젤 등 석유제품 수출 통제 연장은 글로벌 중간 유분 수급 불균형과 물류비 상승을 부추겼고,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는 결제 지연과 물류 차질로 이어지며 교역 리스크를 키웠다. 반면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의 화물 처리 능력이 다섯 배로 늘어나면서 중간회랑은 현실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아시아 간 운송 경로의 다변화 흐름을 가속화하고, 러시아를 우회하는 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 제재와 물류 차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화주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중간회랑 활용을 더욱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역내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가 뒷받침된다면, 중간회랑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물류 지형을 재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통제와 물류 및 공급망 영향

> **러시아는 정유 시설 피해와 내수 수요 급증으로 디젤 등 석유제품 수출 통제를 연장·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중간 유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물류비와 공급망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러시아 정부는 디젤 수출 금지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비생산업체 대상 디젤 수출 금지와 항공유·휘발유 수출 제한도 내년 1월까지 유지하기로 함.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 시설 가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러시아 국내 연료 공급이 타이트해졌고, 수확기 차량용 연료 수요까지 겹쳐 내수 안정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했음.

수출 통제의 직접적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정제 능력 손실과 이에 따른 재고 감소임.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정제 능력의 45% 이상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배급제가 재도입되는 움직임이 나타남. 국내 휘발유 가격은 연초 대비 21% 상승해 리터당 78.51루블을 기록하며 수급 불안을 반영함.

이번 수출 제한은 글로벌 디젤 공급 부족을 악화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음. 러시아는 세계 2위 디젤 수출국으로서 역할이 컸으나, 현재 사실상 수출이 중단되면서 유럽·중동·아시아 시장의 중간 유분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해상 운임 상승과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한 물류 재편이 진행 중임. 특히 미국 디젤 가격은 갤런당 6.5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물류비 상승을 주도함.

러시아는 과잉 생산 시 수출 제한 일부 완화를 시사했지만, 실제 재개 시점은 정유 시설 복구 속도와 제재 유지 여부에 달려 있어 불투명함. 연료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특히 중간 유분을 주로 사용하는 트럭·선박·철도 운송의 운영 차질 가능성이 높아짐.

- 러시아, 디젤 수출 금지 10월 말까지 연장, 비생산업체 및 항공유 제한은 내년 초까지 유지
-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러시아 정제 능력 45% 이상 손실 주장, 일부 지역 연료 배급제 재도입
- 러시아 휘발유 가격 연초 대비 21% 상승, 리터당 78.51루블 기록
- 미국 디젤 가격 갤런당 6.50달러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 러시아, 과잉 생산 시 수출 제한 일부 해제 검토 의사 밝혔으나 실제 재개는 불확실

전망

러시아의 정유 시설 피해 복구가 더딜 경우 수출 통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디젤 수급 타이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이에 따라 해상 운임과 육상 운송비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고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러시아가 수출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더라도 제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류 흐름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것임.

시사점

화주 — 디젤 가격 상승과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해 운송비 예산이 증가하고 납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장기 운송 계약 또는 복수 운송수단 확보가 필요함.

포워더 — 항공유 및 디젤 수출 제한으로 항공·도로 운송 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 운임 산정 시 유가 변동 리스크를 반영한 계약 조건이 요구됨.

항만·선사 — 선박 연료유인 중간 유분 공급 부족으로 벙커링 비용이 증가하고, 일부 항만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운영 효율성 확보가 중요함.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러시아, 디젤 수출 제한 부분 해제 검토...과잉 생산 조건 · The Moscow Times, 러시아 디젤 수출 금지 10월 말까지 연장... 내수 안정 총력 (검색일: 2026-10-04)

중간회랑 물류 인프라 확장과 유럽-아시아 운송 경로 다변화

>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5배 확대되면서 중간회랑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됨. 이는 유럽-아시아 운송 경로 다변화를 추진하는 화주들에게 대안 노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임.**

중간회랑의 핵심 철도 구간인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현대화 공사를 마치고 2025년 6월 2일 재개통됨. 이번 공사로 조지아 구간 184km에 대한 선로 개량, 신규 선로 30.3km 부설, 궤간 변경 시설 신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연간 화물 수송 능력이 기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5배 증가함.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이 개통식에 참석하는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이 노선을 자국 화물의 유럽 수출 경로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이번 용량 확대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기존 북부 회랑(러시아 경유)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해상 운송의 긴 리드타임에 대한 대안을 찾는 화주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치로 분석됨.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를 우회하는 중간회랑의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으며, BTK 철도 현대화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아제르바이잔 철도(ADY)가 주도한 이번 공사에서 궤간 변경 시설을 신설한 것은 구소련권 광궤(1520mm)와 유럽 표준궤(1435mm) 간 환적 문제를 해결하여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임.

중간회랑의 인프라 개선으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유럽행 화물 운송이 활성화될 전망임.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BTK 철도 현대화가 자국의 통과 물동량 증대와 유라시아 물류 체계 효율화에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실제로 카스피해를 건너는 트랜스 카스피안 국제 운송로(TITR)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3년 2만7,000TEU에서 2024년 5만TEU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철도 용량 확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연간 500만 톤이라는 처리 능력은 해상 운송의 대체 경로로 자리 잡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존재함. 예를 들어, 단일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수송할 수 있는 화물량이 약 2만TEU(대략 20만 톤 이상)임을 감안하면, BTK 철도의 연간 용량은 대형 선박 몇 척 분량에 불과함. 따라서 중간회랑이 유럽-아시아 교역의 주요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카스피해 횡단 선박의 현대화, 항만 시설 확충,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여타 구간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함.

- BTK 철도는 2017년 개통 이래 중간회랑의 핵심 구간으로, 조지아 구간 184km 현대화를 통해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을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5배 확대함.
- 이번 공사에서 신규 선로 30.3km 부설, 총 13개 철도역·55개 교량 정비, 궤간 변경 시설 신설 등이 이루어짐.
- 카자흐스탄 정부는 BTK 철도 개발이 자국의 통과 물동량 증대와 유라시아 물류 효율화에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트랜스 카스피안 국제 운송로(TITR)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3년 2만7,000TEU에서 2024년 5만TEU로 증가하는 등 성장 기조가 뚜렷함.
- 연간 500만 톤이라는 용량은 해상 운송 대체 경로로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전망

중간회랑을 통한 유럽-아시아 화물 운송은 BTK 철도 용량 확대를 발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다만, 해상 운송의 대량 수송 능력과 비용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카스피해 횡단 구간의 해운 인프라 개선, 항만 처리 능력 확충, 국경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병행되어야 함.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흐름이 지속되는 한, 중간회랑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시사점

화주 — 러시아 경유 북부 회랑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화주는 중간회랑의 처리 능력 향상으로 대안 경로 선택의 폭이 넓어짐.

포워더 — 중간회랑을 활용한 복합운송 서비스 개발 시, 철도 용량 확대로 운송 일정의 안정성이 높아져 고객 유치에 유리할 수 있음.

항만·선사 — 카스피해 연안 항만과 선사는 중간회랑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선박 현대화 및 터미널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현대화…카자흐 경유 화물 증가 기대 · Transport Corridors,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재개통…연간 화물 용량 500만톤 (검색일: 2026-10-04)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와 결제 시스템 차단이 무역 물류에 미치는 파장

>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강화로 러시아발 무역 결제가 심각한 차질을 빚으며 물류 흐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국경 간 결제 플랫폼 A7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전면 거래 금지 조치를 단행함. A7은 2024년 러시아 방산 특화 은행인 프롬스뱌즈방크가 설립한 회사로, 서방 제재 이후 러시아 기업들의 주요 대체 결제 경로로 활용되어 왔음. 이번 제재로 A7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러시아와 교역하는 중개업체들의 결제 라인이 위축될 가능성이 큼.

제재의 직접적 원인은 A7이 이란 중앙은행, 이슬람혁명수비대, 석유·무기 밀매 조직 등의 불법 자금 세탁을 지원했다는 혐의임. 미국 재무부는 A7이 가상 거래 서류와 수출입 기록 조작 등을 통해 불법 결제를 정상 거래로 위장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70억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밝힘. 이는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구축한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 타격임.

이번 조치는 러시아발 결제망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함. 미국은 지난해에도 A7의 디지털 토큰 A7A5 발행을 제재한 바 있으나, 이번 전면 거래 금지는 더욱 광범위함. 이에 따라 러시아와 교역하는 기업들은 결제 지연, 거래 취소,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특히 러시아로 수출하거나 러시아산 원자재를 수입하는 화주들은 대금 결제 통로가 축소되어 물류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또한 제재 리스크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관련 거래를 기피하면서 무역 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이는 선적 지연, 운임 상승, 물류 병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일부 포워더와 선사들은 러시아향 화물 취급을 중단하거나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재무부, 러시아 A7 결제 플랫폼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전면 거래 금지
- A7, 지난해 1월~올해 6월 사이 170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거래 처리 혐의
- A7은 러시아 방산 특화 은행 프롬스뱌즈방크가 2024년 설립한 국경 간 결제 업체
- 미국, A7의 디지털 토큰 A7A5 발행을 지난해에도 제재한 바 있음
- A7 제재로 러시아발 대체 결제망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

전망

향후 러시아와의 무역 결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제재 회피를 위한 새로운 우회 경로 모색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의 금융 제재 압박은 단기간에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러시아 관련 물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체 결제 수단의 신뢰성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화주 — 러시아와 교역하는 화주는 대금 결제 지연 및 거래 취소 리스크에 대비해야 함.

포워더 — 러시아향 화물의 결제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제재 준수 여부 확인을 강화해야 함.

항만·선사 — 러시아 관련 화물의 수요 감소와 물동량 변동 가능성에 대응한 운영 전략이 필요함.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미국, 러시아 A7 결제망 제재...초국가 범죄조직 지정 (검색일: 2026-10-04)